



## “Maienfeld”

마이엔펠트, 하이디가 뛰놀던 산속의 전원 마을

스위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알프스와 하이디다. 만화, 영화, 드라마로 소개된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해리 포터’가 나오기 전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를 매혹시켰다.

마이엔펠트(Maienfeld)는 바로 하이디가 탄생한 곳이다. 1880년 스위스의 여류 작가 요한나 슈피리는 요양하기 위해 마이엔펠트를 찾았다. 산 아래에는 드넓은 포도밭이 있고, 마을 뒤편으로는 풀밭이 펼쳐진 그곳은 지쳤던 슈피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지내며 ‘하이디란 소녀를 창조해냈고, 이듬해 소설을 발표했다.

마이엔펠트에서는 기차역부터 하이디 마을에 이르기까지 온통 하이디 세상이다. 기차역을 빠져 나오면 하이디를 담은 호텔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띈다. 기념품점, 과자점 등 마을 상점의 간판에도 모두 하이디의 이름이 맨 앞에 박혀 있다.

그리고 하이디 길(Heidiweg)이라는 거리의 팻말은 하이디 마을까지 안내한다.

하이디 마을로 가는 길은 소설이나 만화에서처럼 평온하다. 포도밭이 펼쳐져 있고, 초지에서는 소나 염소가 풀을 뜯는다.

하이디 마을에는 하이디가 할아버지와 살았던 허름한 집, 소설과 만화, 애니메이션 등 하이디 관련 자료와 요한나 슈피리를 소개하는 전시물이 있는 공간이 있다. 하이디의 집에서는 피터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하이디를 만날 수 있다.



4 하이디 마을에서는 도서,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하이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 5 하이디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 6 하이디의 집 내부를 둘러보는 관광객.